

# ‘생각의 변화’에 답이 있다.

최기형 교감선생님



삼성을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여 년 전 이근희 회장이 그룹 수뇌부들에게 지시했던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신경영 선언’의 요체인 ‘변화와 혁신의 창조적 마인드’가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혁신의 정신이 국내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안주하며 구태의연한 관행과 의식에 젖어있던 임직원들을 일깨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낳았다고 봅니다.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생각을 ‘변화’하게 하는 것인데, 특히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도 ‘생각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방식, 학생들의 학습방법, 지역사회나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자세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발전은커녕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존립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기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과 학생지도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서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학력신장이나 입시지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보다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예측하여 대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요즘 교육환경변화의 트렌드인 진로교육, 창의성교육, 융합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하려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생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동안 드러내는 인성과 교양, 지식의 상당 부분이 학창 시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교 시절은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식 습득, 친구와 선배들과의 만남, 독서와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똑같은 풀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으로 나오고, 젓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풀을 우유로 만들려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단한 독서와 사색,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기존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토론을 통해 내 생각의 잘못된 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더불어 창의적인 산출물을 낳고 독서와 토론은 부수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가져옵니다. 글로벌시대의 리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지자체가 지향하는 것은 주민들이 ‘오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자녀교육만족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천 동구가 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동구의 유일한 일반계고교인 본교가 명문고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건전한 교육활동 참여 또한 학교 교육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자녀의 학업과 진로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계시지만, 일부 내 아이에 대한 과잉욕구와 그릇된 정보에 얽매어 지도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입시제도의 변화, 자녀의 학업상황에 대한 학교의 안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합니다. 진학문제나 생활지도면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조처로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님들, 일부 그릇된 정보 분석에 의한 외부 기관의 안내만 믿고 선생님을 불신하는 학부모님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고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하시는 ‘오고 싶은 동산, 참여하는 동산’이 될 수 있게 생각의 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卍